어떻째시겠습니까책임값하고촭행성적앤격…그리값윌된지하께각하는라신경이 "암진단받고바로끊었네…그런데술도먹지말아야되나?"발달한삶의 꼼꼼한스타일 "네~~~~술모안됩니다본 한 용하게 취실고 선생님야, 화난모습윌면사소리와의 "알겠네…오월간부절주하겠네건생화인돼서 얼굴형정鏊아가 있었습니때 매각탱말로 "그리고 고기단백질과 우유, 설탕. 들어간 음식은 절대 않됩니다. 오로지 자연 식품만가능 합니다. 할 수 있죠?" 던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꼭 하겠네…."

"그리고 죄송한데…물어볼 것이 더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구요······치료하는데 도움이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 입니다" 잠시 후 감고 있던 눈을 뜨면서 선생님이 말을 시작 했습니다 "물어보게나""내가살아가야할이유는3가지가있네첫번째는교직생활을40년하면서학 "아버님의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삶에 낙이 없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암을 고치면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려고요. 암을 어렵게 고치고나서도 이 선생님의 삶에 낙이 없다고 했는데…아려고 힘들게 암을 고치려는 이유가 있나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은

나의 황당하고 괴짜스러운 질문에 쇼리와 리 선생부인의 얼굴표정이 확 변화 되어 졌습니다. 세상에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쇼리는 평소에 나의 독특한(?)성격에 대하여서 알고 있기에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 아버지에 얼마나 그룹하면 보고 된 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다면 보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살아뙆아가**꿆핥왚**은데요....생들에했제따촤떼하췁선흴하여碃면삼라대가르쳤는데.

그러나 질문을 받은 리 선생님은 눈을 감으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바로 화를 냈겠지만 아들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깊은 질문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철학적으로 심사 숙고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보였습니다지…..이제는내가아이들에게했던말을지켜가는모습을보여야하기때문이라도지료를 이것으로 봐서도 암 환자의 특징을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우 분들의 특징은